

# 광주를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으로...새 먹거리 찾는다

## “스마트 관광·MICE 허브 미래 선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광주관광공사 출범 이후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틀도시’를 만들기 위한 담금질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데 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제2대 광주관광공사 수장으로 취임한 정재영 사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정 사장은 8광주 관광과 MICE 산업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탄생한 광주관광공사가 정 사장의 취임과 함께 광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정 사장이 제시한 미래 비전은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MICE 허브’에 집약돼 있다.

그는 미래 비전·전략 발표를 통해 ‘조식 안정’과 함께 ▲대표 관광 BI(Brand Identity) 구축 ▲주요형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양질의 국제·전국 행사 유치 등 3대 정책과제를 축으로 공사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사장은 광주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도시를 움직이는 통일된 메시지가 부족해 행사 난립과 메시지 분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화·예술·역사·미식을 통합해 광주다운 통합 BI를 구축하고, 광주에 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시그니처 행사와 5대 대표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산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경영 혁신을 예고했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정 사장은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노조와 구성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개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KBC 광주방송에서 약 30년간 기자와 앵커로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누볐던 정 사장은 현장형 리더십을 강조한다.

그는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공감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30년 언론인으로서 쌓아온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VOC(고객의 소리) 기반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어둠을 밝히며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의료·헬스케어 분야와 지역 창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자생적 마이스(MICE)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경제의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광주관광공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행사 유치를 넘어 지역의 전략 산업과 로컬 창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 ‘자생적 마이스(MICE)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광주관광공사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전당(ACC)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2026 MICE 산업 중심도시 육성계획’은 광주를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지역 전략 산업과 마이스의 결합...‘메디컬 마이스’로 승부수-광주관광공사는 2026년을 글로벌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그 중심에는 광주가 강점을 가진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유치한 전체 21건의 마이스 행사 중 의료 및 메디컬케어 분야가 11건으로 52%를 차지할 만큼 광주의 메디컬 마이스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김대중컨벤션센터(KDJ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대형 의료 행사를 집중 지원한다.

2000명 규모의 광주 심장중재술 심포지엄을 비롯해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1200명), 대한비뇨의학회 통합학술대회(600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행사는 지역 의료 산업의 기술 교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소비를 이끌어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아가 공사는 128개국 6000명이 참여하는 ‘2027 세계사회학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공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소상공인에서 로컬 기업까지...‘성장 사다리’ 놓는 광주관광공사- 광주관광공사의 마이스 전략은 이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광주 유치 마이스 행사 52% 의료·메디컬케어 분야 지역 전략 산업 결합...글로벌 MICE 중심도시 도약 원년 박차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소상공인·로컬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 광주 인프라와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 결합 시너지 효과 전략

지난 2월 5일, 공사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및 로컬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뜻을 올렸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는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및 로컬창업 기업 발굴·육성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성장 지원 ▲취·창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전문가 자문 등이 포함됐다.

광주관광공사는 이8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MICE 산업과 창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마이스 지형도의 핵심축, ‘광주 중심’의 상생 모델-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마이스 산업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협력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광주의 우수한 회의 공간 인프라와 전남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워크숍이나 포상관광 등 체험형 기업 행사를 광주의 대형 호텔과 KDJ센터의 전문 비즈니스 인프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광주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남의 섬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현장 탐방으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형’ 공동 유치 구조는 광주가 호남권 마이스의 명실상부한 허브임을 증명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산업별·규모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유

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과 스마트 마이스...질적 성장도 모=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스마트 마이스’로의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행사 기획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마이스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이를 실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5% 가산 혜택을 부여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개최 지원금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참가자 수와 행사 일수에 따라 최소 24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참가자 인센티브를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제공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마이스 산업의 결실인 지역 골목상권으로 흐르게 하려는 세심한 배려다.

◇마이스 앰버서더와 얼라이언스...인적 네트워크 강화=지역 마이스 산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광주 마이스 얼라이언스(GMA)’와 ‘앰버서더’ 운영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90개 회원사로 구성된 GMA는 휴먼 회원사를 정비하고, 2027년 세계사회학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협력 구조로 재편된다. 또한 30명의 마이스 앰버서더에게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소속 학회 행사 개최나 유치 홍보물 제작비 등 실질적인 지원 가이드를 제공한다.

개최 확정 건수와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광주 마이스 유치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광주는 이제 단순한 행사 개최지가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뭉친 통합 마이스 마케팅의 중심에서 광주가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민들이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이스페어’에서 각종 보드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2025 광주 미래산업엑스포’ 참석자들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UAM(도심항공교통)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제56차 세계양궁연맹 총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